

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

2025. 4.



〈조사개요〉

1. 조사명

-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

2. 조사목적

-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파악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

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수출상위기업 177개체(대미수출액 상위기업 포함)

4. 조사방법

- 실태조사 설문(자기 기입식)

5. 조사내용

- 트럼프 2기 통상정책 영향
- 긍정/부정 요인 및 자체 대응책
- 정부 및 부산시에 대한 요구 지원책

6. 조사기간

- 2025.2.10.~4.4.

1 조사응답기업 현황

1. 업종 현황

- 조사응답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85.3%, 도매업 13.6%, 기술서비스업 1.1% 비중 차지
 - 제조업은 주로 철강, 기계, 자동차부품, 조선기자재, 섬유, 화학 등
 - 도매업은 철강, 수산식품 등

< 조사응답기업 업종별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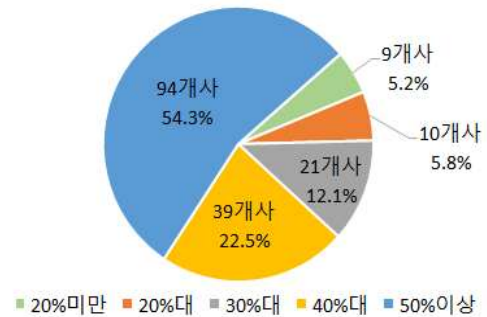
구분	제조업	도매업	기술서비스업	계
기업수(개사)	151	24	2	177
비중(%)	85.3	13.6	1.1	100

2. 수출비중 및 수출품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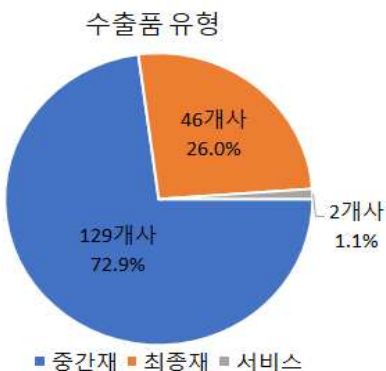
- 조사응답기업의 과반수가 수출비중 50% 이상 차지

-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출비중 50% 이상이 9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40%대 39개사, 30%대 21개사, 20%대 10개사, 20% 미만 9개사 순(4개사 미응답)

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현황



- 수출품 형태는 중간재 비중이 72.9%로 가장 많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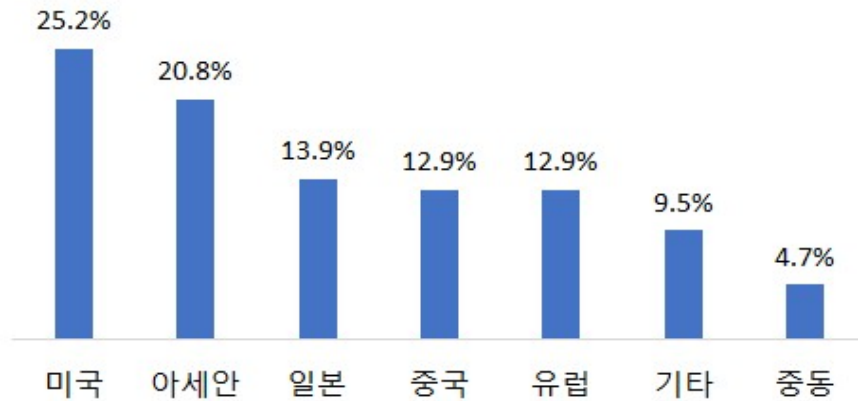


- 수출품 유형으로는 부품, 소재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이 129개사 (72.9%)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소비재, 자본재 등 최종재 46개사 (26.0%), 서비스 2개사(1.1%) 순

3. 주요 수출지역

- 단일국가로는 미국, 경제권으로는 아세안지역이 주요 수출지역
 - 주요 수출지역으로는 미국이 25.2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아세안 20.8%, 일본 13.9%, 중국 12.9%, 유럽 12.9% 등 순

주요 수출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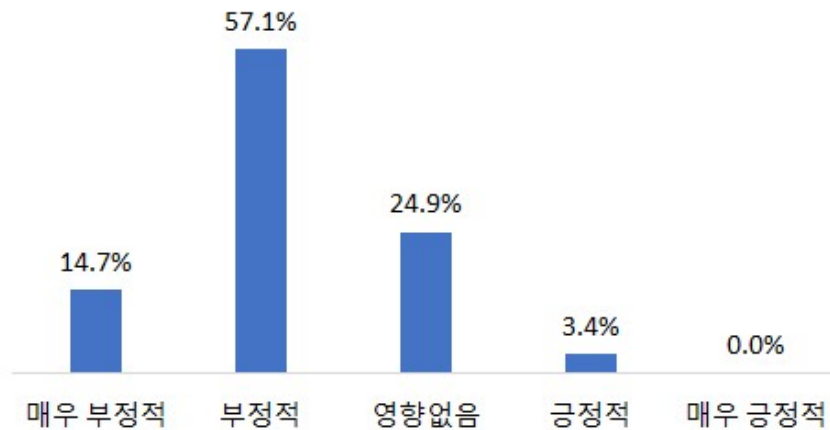


2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

1.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영향

- 조사기업의 71.8%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
 -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7.1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영향없음 24.9%, 매우 부정적 14.7%였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.4%에 불과
 - :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점진적으로 관세 부과를 하고 있어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 우려가 큰 상황
 - : 특히 철강, 기계, 자동차 및 부품, 금속가공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

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영향



2.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

□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, 반사이익 등 영향은 제한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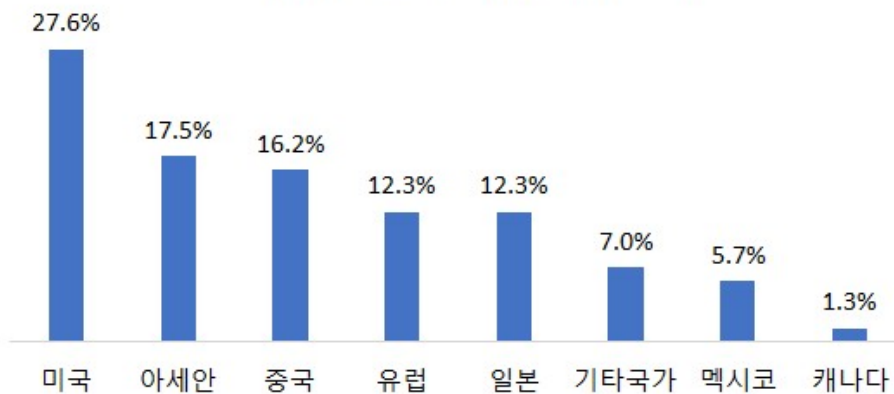
○ 중간재 수출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 16.2%

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4%에 그쳐

- 지역 수출 중간재의 주요 수출지역으로는 미국이 27.6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아세안 17.5%, 중국 16.2%, 유럽 12.3%, 일본 12.3% 등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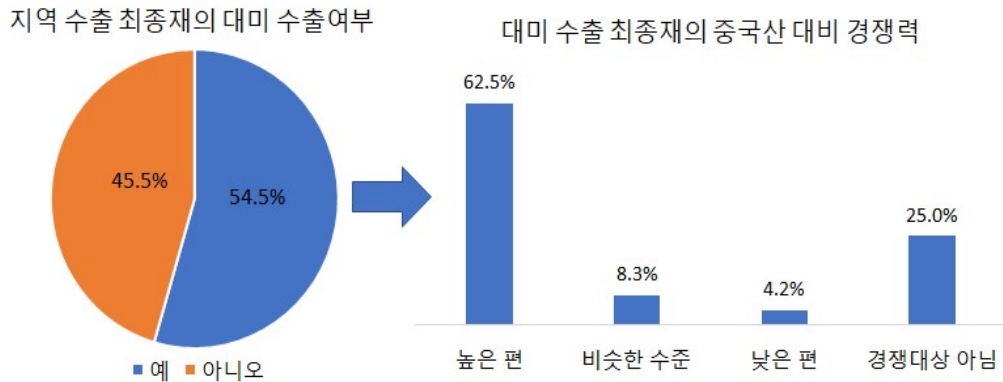
: 특히 중국으로 수출한 중간재가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24% 수준이며, 그 외는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 중

지역 수출 중간재의 주요 수출지역



○ 최종재 수출기업의 과반수가 대미 수출 중. 중국산 대비 경쟁력 매우 높은 편

- 지역 수출 최종재의 대미 수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54.5%가 수출 중인 것으로 응답했음. 대미 수출중인 최종재의 중국산 제품 대비 경쟁력을 확인한 결과 62.5%가 높다고 응답했으며, 25.0%는 경쟁대상이 아니라고 응답



3. 위험과 기회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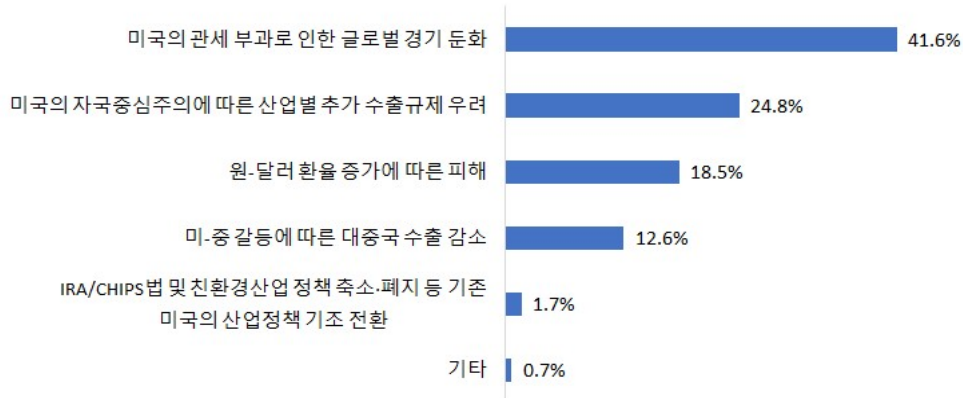
○ 지역 수출기업의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별 수출 규제를 꼽아

- 지역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으로는 관세부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41.6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자국중심주의에 따른 산업별 추가 수출규제 우려 24.8%, 원-달러 환율 증가에 따른 피해 18.5%, 미-중 갈등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 12.6% 등 순

: 자동차를 제조하는 A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 시장에 판매할 계획인데 미국의 수입자동차 25% 관세 부과 예고로 대응책 마련 시급한 상황이며, 자동차부품업체 B사는 미국과, 멕시코 현지 공장을 운영 중이며, 관세 부과 시 상당한 피해 예상되며 관세 부과 조치 회피를 위해서는 미국 현지 공장 생산량을 늘려야 하나 공장 규모가 작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: 철강선을 제조하는 C사는 트럼프 1기 때 철강 쿼터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25% 관세조치로 기업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, 철못을 제조하는 D사도 2014년부터 미국이 한국산 철못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25% 추가 관세까지 겹쳐 수출 감소가 불가피

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부정적 요인



- 기회요인으로는 원-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호전 등 수혜를 꼽아
 - 지역 수출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-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35.9%로 가장 많았으며, 전쟁 종식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인한 수출환경 개선 기대 18.2%, 미국의 대중국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17.7%, 미국의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 14.4%, 미국과 조선업 협력에 따른 수혜 13.3% 등 순

: 조선기자재업체 A사는 조선 업황이 호전되면서 매출 증가세에 있으며 트럼프 2기 출범이후 군함 MRO에 대한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기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
: 선박수리업체 B사는 러시아 선박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러-우 전쟁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황 회복을 기대

: 변압기를 제조하는 C사는 생산량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, AI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5년간은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
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긍정적 요인



4. 올해 수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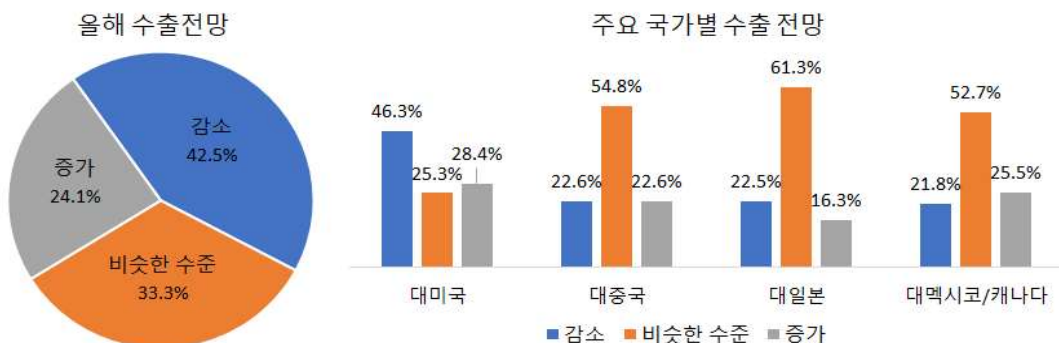
○ 올해 수출은 감소에 무게. 특히 대미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

- 전년대비 올해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2.5%, 비슷한 수준 33.3%, 증가 24.1% 순으로 올해 수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

: 주요 수출품목의 부진, 신성장산업 기반 취약 등 지역 수출은 2023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있어,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

-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6.3%로 가장 컸으며 대중국 22.6%, 대일본 22.5%, 대멕시코/캐나다 21.8% 등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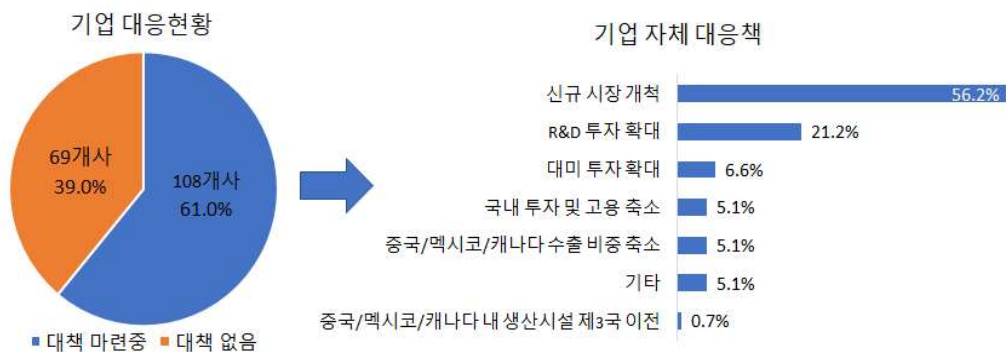
: 관세 부과, FTA 협상 폐기 등 미국의 자국 중심 보호무역 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



3 기업 대응현황 및 필요 지원책

1. 기업 대응현황

- 조사응답기업 61.0%가 대책마련 중, 39.0%는 별다른 대책 없어
 -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61.0%였으며, 그 중 56.2%가 신규 시장 개척을 최우선으로 선택. 그 다음으로는 R&D 투자 확대 21.2%, 대미 투자 확대 6.6%, 국내 투자 및 고용 축소 5.1% 등 순



2. 요구 지원책

- 대미 협상관련 정부 대응력 강화와 신시장 진출 지원을 꼽아
 - 정부나 부산시에 요구하는 지원책으로는 대미 관세, 무역 규제 등에 관한 정부 대응력 강화를 21.8%가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신시장 진출 지원 21.0%, 물류비 및 무역보험료 지원 16.0%, 원-달러 환율 안정화 13.8%, R&D 지원 11.9%, 해외인증 지원 8.8% 등 순



4 시사점

-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실질적인 피해는 제한적, 장기적 우려 증대
 - 미국과의 직접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심화
 - 관세정책의 구체적인 영향이 드러나기까지 일정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

- 정책제언으로는 먼저 정부의 통상정책 대응능력 강화 필요
 - 미국 및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필요. 특히 대미 관세 및 무역 규제 완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과 국제 연대 강화

- 민관합동 통상리스크 대응 추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
 - 부산시와 유관기관 등 협력을 통한 통상 리스크 대응 전담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기업지원 대책 마련

- 수출 다변화를 위한 지원
 -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인증,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복합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
 - 특히 글로벌사우스 지역 시장 선제 개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, 현지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지원

- 수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
 - 전력기기, 조선기자재, 고부가 철강 등 대미 수출 전략산업 집중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
 - R&D 인력, 자금 등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, 글로벌 경쟁력 강화